

무엇이 정말 잘 사는 삶일까요?

기도

찬 송 정결한 마음 주소서 (131쪽)

말 씬 시편 1:1-3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중물

성경과 역사 속에서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 명예, 출세, 지위...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의 기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모든 시험과 역경을 뚫고 자기의 고유한 역할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을 넘어 이 땅에서 주어진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은 '돈이 없어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았어요. 나이 들어 한쪽 손을 쓰지 못할 때도 남은 한 손으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작은 예수라고 불렀답니다. 자신의 재산은 한 푼도 없었지만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던 분이지요.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의 정의를 바르게 내린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잘 살 수 있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1.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

→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 바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바라실까요?

.....
3.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기 위해선 어디에 심겨 있어야 하나요? (3)

.....
4.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
5.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열매 맺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2)

.....

함께하는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주기도문

(정답 126쪽)